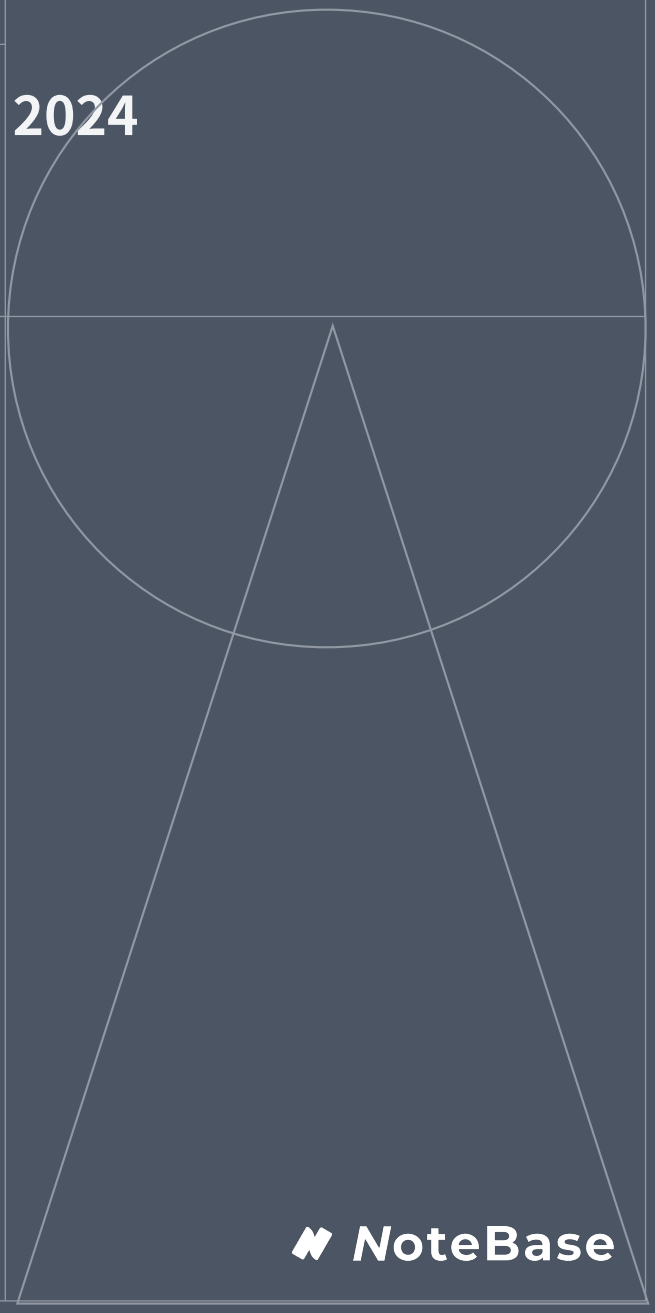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4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4

###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4

1. 다음 중 발음의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뚫는[뚤는]
   ② 넓다[널따]
   ③ 끝으로[끄츠로]
   ④ 젖먹이[점머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겹받침의 발음, 연음, 유음화, 비음화를 적용하여 표준 발음 표기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받침의 발음은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 달라진다. 겹받침 'ㅄ'은 '넓다'에서 [ㄹ]로 발음되고 뒤의 'ㄷ'이 된소리가 되며, 'ㅀ' 뒤에 'ㄴ'이 오면 'ㅎ'이 탈락한 뒤 유음화가 일어난다.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받침 'ㄷ' 계열 뒤에 'ㅁ'이 오면 비음화되어 [ㄴ]으로 발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뚫는[뚤는]'에서 [뚤는]이 틀린 표기이다. 'ㅀ'의 'ㅎ'이 탈락하고 받침 'ㄹ'과 뒤의 'ㄴ' 사이에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뚫는'은 [뚤른]으로 발음한다.
② O — '넓다'의 겹받침 'ㅄ'은 이 단어에서 [ㄹ]로 발음되고, 받침 뒤의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므로 [널따]가 맞다.
③ X — '끝으로[끄츠로]'에서 [끄츠로]가 틀린 표기이다. 받침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으로'가 결합하면 'ㅌ'이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지므로 '끝으로'는 [끄트로]로 발음한다.
④ X — '젖먹이[점머기]'에서 [점머기]가 틀린 표기이다. 받침 'ㅈ'은 음절 끝에서 [ㄷ]으로 발음되고, 뒤의 'ㅁ' 앞에서 비음화되어 [ㄴ]이 되므로 '젖먹이'는 [전머기]로 발음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ㅎ' 탈락까지만 반영하고 유음화를 빠뜨리기 쉽다. ③은 'ㅌ'을 근거 없이 [ㅊ]으로 바꾼 표기이고, ④는 뒤의 'ㅁ'에 이끌려 받침까지 [ㅁ]으로 발음한다고 잘못 판단하게 만든 표기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받침과 뒤 음절의 첫소리를 확인한다. 모음이 이어지면 연음 여부를 보고, 자음이 이어지면 받침의 대표음과 유음화·비음화·된소리되기 같은 음운 변동을 차례로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넓다[널따]’는 ㄼ이 [ㄹ], ‘뚫는[뚤른]’은 ㅎ 탈락 뒤 유음화, ‘끝으로[끄트로]’는 연음, ‘젖먹이[전머기]’는 비음화이다.

NoteBase

2. 다음 중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① 집 밖에 눈이 쌓였다.
② 공부 밖에 모르는 학생이군.
③ 맨손으로 땅을 팠다.
④ 한겨울에 얇은 옷만 입은 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사 뒤에 붙는 조사와 접두사가 붙은 말,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밖에'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밖'과 조사 '에'의 결합인지, '오직 그것뿐'이라는 뜻의 보조사인지 판단해야 한다.

**핵심 개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접두사는 뒤의 말에 붙여 쓴다. 반면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밖에'가 '오직 그것뿐'이라는 뜻의 보조사이면 앞말에 붙여 쓰지만, '집 밖'처럼 '밖'이 공간을 뜻하는 명사이면 앞말과 띄어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밖'은 집의 외부라는 공간을 뜻하는 명사이므로 '집'과 띄어 쓰고, 조사 '에'는 '밖'에 붙여 '집 밖에'로 쓴다.
② X — '공부'만 안다는 뜻이므로 '밖에'는 '오직 그것뿐'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이다. 보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공부 밖에'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이군.'이다.
③ O —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손'에 붙여 '맨손'으로 쓴다. 조사 '으로'도 앞말에 붙으므로 '맨손으로'가 맞다.
④ O — '한겨울'은 붙여 쓰고, 조사 '에'와 '만'은 각각 앞말에 붙여 쓴다. '채'는 어떤 상태가 계속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어 '입은'과 띄어 '입은 채'로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에 모두 '밖에'가 보여 같은 방식으로 띄어 쓰기 쉽다. ①의 '밖'은 장소를 뜻하는 명사이고, ②의 '밖에'는 뒤에 부정 표현 '모르는'과 어울려 '공부만'이라는 뜻을 만드는 보조사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밖에'를 '오직 ~만'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면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실제 안과 밖의 공간을 가리키면 '밖'을 명사로 보아 앞말과 띄어 쓴다. 또한 조사·접두사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운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공간은 '집 밖에', 한정은 '공부밖에'이다. 조사와 접두사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NoteBase

3. 다음 중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홀로 설 수 있는 말의 단위
②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③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④ 끊어 읽기의 단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형태소의 정의를 음운, 단어, 어절의 정의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음운은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고, 단어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의 단위이며, 어절은 문장에서 띄어 쓰는 단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홀로 설 수 있는 말의 단위'는 형태소가 아니라 단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형태소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한다.
② X —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는 형태소가 아니라 음운이다. 올바르게는 형태소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한다.
③ O — 형태소는 더 나누면 본래의 뜻이나 문법적 기능을 잃게 되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④ X — '끊어 읽기의 단위'는 형태소의 정의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어절을 문장에서 띄어 쓰는 말의 단위로 보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홀로 설 수 있는', ②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 ④의 '끊어 읽기'는 각각 다른 말의 단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뜻을 가진'과 '가장 작은'이 함께 제시된 ③이 형태소의 정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의의 핵심어를 대응시킨다. 소리로 뜻을 구별하면 음운, 뜻을 가진 최소 단위이면 형태소, 자립하여 쓰이면 단어, 띄어쓰기 기준이면 어절이다.

**암기 포인트**

음운은 소리의 최소 단위, 형태소는 뜻의 최소 단위, 단어는 자립 단위,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이다.

NoteBase

4. 아래의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① 설거지는 내가 할게.
②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꼈다.
③ 잠시 후 산등성이가 보였다.
④ 저기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의 올바른 표기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맞춤법은 표준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는 방식이다. 실제 발음이나 일상적인 말소리만 따라 적지 않고, 단어의 표준 표기를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설거지'는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을 뜻하는 표준어이며, 올바른 표기이다.
② X — '바꼈다'가 틀린 표현이다. '바뀌다'의 과거형은 '바뀌었다'이므로, 문장은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산의 등줄기를 뜻하는 말은 '산등성이'로 적으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④ O — 돌이 한데 많이 쌓인 것을 뜻하는 말은 '돌무더기'로 적으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바꼈다'는 '바뀌었다'의 발음을 따라 잘못 적기 쉬운 표현이다. '바뀌다'의 어간 '바뀌-'를 유지해 '바뀌었다'로 적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활용형은 소리 나는 대로 적기보다 기본형과 어간을 먼저 확인한다. '바뀌다'의 기본형을 확인하면 과거형이 '바뀌었다'임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설거지·산등성이·돌무더기는 맞는 표기이고, '바꼈다'는 '바뀌었다'로 적는다.

NoteBase

5. 다음 낱말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은?

① 깨끗히
② 가득히
③ 조용히
④ 고스란히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형용사나 부사에 접미사 '-이'와 '-히'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의 표준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와 '-히'는 발음과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준 형태로 적는다. 이 문항에서는 '깨끗이'만 '-이'로 적고, '가득히·조용히·고스란히'는 '-히'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깨끗히'는 잘못된 표기이다. '깨끗하다'의 부사는 '깨끗이'로 적는다. 틀린 표현 '깨끗히' → 올바른 표현 '깨끗이'이다.
② O — '어떤 물건이나 내용 따위가 빈 데가 없을 만큼 많은 상태로'라는 뜻의 부사는 '가득히'로 적으므로 맞다.
③ O — '조용하다'의 부사는 '조용히'로 적으므로 맞다.
④ O — '건드리지 아니하여 조금도 축이 나거나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라는 뜻의 부사는 '고스란히'로 적으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깨끗하다'처럼 기본형에 '-하다'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부사를 모두 '-히'로 적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깨끗히'가 아니라 '깨끗이'가 표준 표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히' 표기는 기본형에 '-하다'가 붙는지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표준 부사형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특히 자주 틀리는 '깨끗이'와 '고스란히'를 서로 다른 어미로 묶어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깨끗이는 '-이', 가득히·조용히·고스란히는 '-히'이다.

NoteBase

6. 다음 문장 중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오늘은 잔디밭에서 책과 그림을 그렸다.
②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안다.
③ 이번 연극에서 영희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④ 그녀는 초보치고는 운전을 썩 잘하지는 못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끼리 의미상 자연스럽게 호응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 성분의 호응은 주어·목적어·부사어 등이 서술어와 의미 및 문법 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관계이다. 특히 여러 목적어가 하나의 서술어에 함께 걸릴 때에는 각 목적어가 그 서술어와 모두 어울려야 하며, '모름지기'처럼 당위의 뜻을 가진 부사어와 '초보치고는'처럼 예외적 평가를 나타내는 표현도 뒤의 서술어와 맞아야 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책과 그림을 그렸다’에서는 ‘책’과 ‘그림’이 모두 서술어 ‘그렸다’의 목적어로 묶여, 보통 의도하는 ‘책을 읽다’와 ‘그림을 그리다’의 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늘은 잔디밭에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로 고치면 자연스럽다.

② X
‘모름지기’는 ‘마땅히, 반드시’라는 당위의 뜻이므로 단순한 능력을 나타내는 ‘알다’와 호응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O
주어 ‘영희는’, 부사어 ‘이번 연극에서’, 목적어 ‘주인공 역할을’이 서술어 ‘맡았다’와 의미상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④ X
‘초보치고는’은 초보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낫다는 예외적 평가를 나타내는데, ‘잘하지는 못한다’는 그 기대와 같은 방향의 부정적 평가이므로 호응이 어색하다.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려면 ‘그녀는 초보치고는 운전을 썩 잘한다.’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오답 포인트

①은 ‘책과 그림’이 문법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다고 보기 쉽고, ④는 ‘썩’이 부정 표현과 잘 어울린다는 점에만 주목하기 쉽다. 그러나 문장 전체에서 각 목적어와 서술어의 의미 관계, ‘초보치고는’이 요구하는 예외적 평가의 방향까지 확인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어·목적어·부사어와 서술어를 짝지은 뒤, 각각의 짝이 의미상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이어 ‘모름지기’는 당위 표현과, ‘~치고는’은 일반적 기대와 반대되는 예외적 평가와 호응하는지 살핀다.

### 암기 포인트

목적어는 서술어와 하나씩 짝지어 보고, ‘모름지기’는 ‘~해야 한다’, ‘~치고는’은 기대를 벗어난 평가와 연결한다.

NoteBase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말 표현 중에는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하나가 비교 구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重義性)인데, 이는 비교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① 나는 내일 철수와 선생님을 만난다.
② 결혼식장에 손님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
③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그림을 어루만졌다.
④ 글쎄, 남편은 나보다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한다니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비교 구문에서 비교 대상이나 비교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성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교 구문의 중의성은 ‘A보다 B를 더 좋아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생긴다. 반면 접속·동반 관계, 부정의 범위, 관형격 표현의 의미 관계가 불분명해서 생기는 중의성은 비교 구문의 중의성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철수와 선생님을'에서 '와'가 접속을 나타내어 철수와 선생님 두 사람을 만난다는 뜻인지, 동반을 나타내어 철수와 함께 선생님을 만난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다. 비교 구문이 아니라 접속과 동반 관계에서 생긴 중의성이다. 틀린 표현은 비교 표현이 없는 '철수와 선생님을'이다. 뜻을 분명히 하면 '나는 내일 철수와 선생님 두 사람을 만난다' 또는 '나는 내일 철수와 함께 선생님을 만난다'가 된다.

② X
'다'와 부정 표현 '않았다'의 적용 범위에 따라 손님 중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 부정과 손님 전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체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교 구문의 중의성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범위가 불분명한 '다 들어오지 않았다'이다. 뜻을 분명히 하면 '손님들 가운데 일부는 들어오지 않았다' 또는 '손님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가 된다.

③ X
'아버지의 그림'은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 아버지가 그린 그림, 아버지를 그린 그림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관형격 조사 '의'가 나타내는 의미 관계에서 생긴 중의성이지 비교 구문의 중의성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관계가 불분명한 '아버지의 그림'이다. 뜻에 따라 '아버지가 그린 그림' 또는 '아버지를 그린 그림'처럼 고쳐 쓸 수 있다.

④ O
'남편은 나보다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한다'는 남편이 축구 중계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뜻과, 남편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한다는 뜻으로 모두 해석된다. 비교 대상 또는 비교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생기는 비교 구문의 중의성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네 선지 모두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발문은 단순한 중의적 문장이 아니라 '비교 구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을 묻는다. ①의 '와', ②의 '다'와 부정 표현, ③의 '의'에 끌리면 중의성의 발생 원인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다', '더', '덜'과 같은 비교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생략된 비교 기준을 달리 보충했을 때 두 해석이 가능한지를 살핀다. 비교 표현 없이 조사나 부정의 범위 때문에 뜻이 갈리면 비교 구문의 중의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비교 중의성은 '누가 누구보다'와 '무엇을 무엇보다'의 비교축이 겹칠 때 생긴다.

NoteBase

8.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어둠 속에 눈을 뜬 강실이한테 무참히 끼쳐든 것은 생전 처음 맞닥뜨린 낯섦의 스산하고 (　　) 기운이었다. – 최명희, <혼불>

① 성마른
② 돈바른
③ 살천스러운
④ 암상스러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인용문의 문맥과 빈칸 뒤 명사인 '기운'에 어울리는 우리말의 뜻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살천스럽다'는 쌀쌀하고 매서운 데가 있다는 뜻이다. '스산하고'와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낯선 상황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매서운 '기운'을 나타내기에 알맞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성마른'은 참을성이 없고 성질이 조급한 상태를 나타내므로 '기운'의 차갑고 매서운 느낌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성마른'은 '살천스러운'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돈바른'은 성미가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로운 상태를 나타내므로 스산한 분위기나 기운을 묘사하기에 부적절하다. 틀린 표현 '돈바른'은 '살천스러운'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살천스러운'은 쌀쌀하고 매서운 데가 있다는 뜻이므로 '스산하고 살천스러운 기운'이라는 문맥에 가장 자연스럽다.
④ X — '암상스러운'은 남을 시기하고 샘을 잘 내는 데가 있다는 뜻으로, 사람의 성정에 가까운 말이어서 낯선 밤의 '기운'을 나타내지 못한다. 틀린 표현 '암상스러운'은 '살천스러운'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네 말 모두 부정적인 느낌을 지녀 어감만으로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다. 그러나 '스산하고'와 나란히 쓰이면서 '기운'을 꾸며야 하므로, 차갑고 매서운 느낌을 나타내는 ③ '살천스러운'이 적절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빈칸이 꾸미는 명사를 확인한 뒤, 앞뒤 표현과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판단한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과 분위기·기운의 감각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살천스럽다 = 쌀쌀하고 매섭다.

NoteBase

9. 다음 중 밑줄 친 ㉠, ㉡과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생사(生死) 길은
>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몯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
>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 – 월명사(김완진 해독), 「제망매가」

① 이 작품은 신라시대의 향가 중 한 편이다.
② ㉠은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누이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③ 죽은 누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작품이다.
④ ㉡은 누이의 죽음에 의한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적 공간을 제시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망매가」에 나타난 하강적 이미지와 종교적 공간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향가는 신라 시대에 향찰로 기록된 우리말 정형 시가이다. 「제망매가」의 화자는 죽은 누이를 애도하면서, 인간의 죽음을 낙엽에 빗대고 불교적 수행을 통해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
ㄱ의 '떨어질 잎'은 죽음과 이별을 드러내는 하강적 이미지이고, ㄴ의 '미타찰'은 아미타불이 있는 정토, 곧 극락을 뜻하는 초월적·종교적 공간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제망매가」는 신라 시대 승려 월명사가 지은 향가이다.
② O — ㄱ의 '떨어질 잎'은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이루며, 한 가지에서 난 잎들이 흩어지듯 누이와 이별한 상황과 죽음의 허무를 상징한다.
③ O — 화자는 미타찰에서 누이와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도를 닦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죽은 누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이다.
④ X —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적 공간'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ㄴ의 미타찰은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죽은 누이와 재회하기를 소망하는 초월적·종교적 공간이다. 올바르게는 'ㄴ은 누이의 죽음에 따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초월적 공간을 제시한다'이다.

### 오답 포인트

④는 '누이의 죽음에 의한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앞부분 때문에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미타찰'은 현실의 욕망을 충족하는 장소가 아니라 불교적 정토인 극락이므로,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적 공간'이 결정적인 오류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적 공간의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그 공간을 가리키는 종교적 표현과 화자의 행위를 함께 본다. '미타찰', '도 닦아'처럼 불교적 시어가 결합하면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만남을 바라는 초월적 공간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떨어질 잎은 죽음과 이별의 하강적 이미지, 미타찰은 극락 재회를 바라는 초월적 공간이다.

NoteBase

10. 다음은 탑골공원에 대한 실태 보고서의 목차이다. ㉠~㉤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서론

2. 탑골공원의 지리적 조건
   1) 교통편과 주차 시설
   2) ㉠편의 시설과 주변 상가
   3) ㉡인근 공원의 위치와 거리

3. 탑골공원 이용객의 실태
   1) 연령대별 이용 시간
   2) ㉢선호하는 공원 시설 및 행사
   3) ㉣노약자를 위한 시설 관리 대책

4. 결론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실태 보고서의 목차에서 각 세부 항목이 상위 항목의 범위와 성격에 맞게 묶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리적 조건은 공원의 위치·접근성·주변 환경처럼 장소와 관련된 여건을 뜻한다. 이용객의 실태는 이용 시간·선호·불편 사항처럼 이용객에게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황을 뜻한다. 반면 관리 대책은 현재의 실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편의 시설과 주변 상가'는 공원 안팎의 시설과 주변 환경을 보여 주므로 '탑골공원의 지리적 조건'에 알맞다.

② O — ㄴ의 '인근 공원의 위치와 거리'는 탑골공원과 주변 공원의 공간적 관계 및 접근 여건에 관한 내용이므로 '지리적 조건'에 알맞다.

③ O — ㄷ의 '선호하는 공원 시설 및 행사'는 이용객의 선호를 조사한 내용이므로 '탑골공원 이용객의 실태'에 알맞다.

④ X — ㄹ의 '노약자를 위한 시설 관리 대책'은 이용객에게서 확인한 현재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시행할 개선 방안이므로 '이용객의 실태'에 알맞지 않다. 이 위치에 둘 내용은 '노약자의 시설 이용 실태와 불편 사항'처럼 실제 현황으로 고쳐야 하며, 원래 표현을 유지한다면 '시설 관리 개선 방안'과 같은 별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ㄹ에 '노약자'라는 이용객 표현이 들어 있어 이용객의 실태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분류 기준은 대상이 아니라 내용의 성격이다. '실태'는 현재의 현황이고 '대책'은 앞으로의 해결 방안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부 항목의 핵심어를 상위 항목의 뜻과 대조한다. 위치·거리·주변 환경은 지리적 조건, 이용 시간·선호·불편은 이용 실태, 대책·방안은 개선안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실태는 '지금 어떠한가',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이다.

NoteBase

11. ㉠~㉢에 알맞은 말은?

> 비슷한 나이의 동료끼리 말을 주고받을 때는 '홍길동 씨, 경리과에 전화했어요?', '이 과장, 거래처에 다녀왔어요?'처럼 '해요체'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위이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합쇼체'를 써서 말할 필요가 있다. 곧 '홍길동 씨, 경리과에 전화했습니까?', '이 과장, 거래처에 다녀왔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윗사람과 말을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합쇼체'를 써서 '이번 일은 제가 맡아 처리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해야 한다.
>
> ( ㉡ ) 가정에서라면 아랫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상대방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해체'나 '해라체' 정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아무리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 관계에서와는 달리 어느 정도 높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 ㉢ ) 과장이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말을 할 때 '홍길동 씨, 업무 계획서 좀 빨리 작성해 줘요.' 하고 말할 수 있다.
>
> 그러나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매우 어리거나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는 '홍길동 씨, 업무 계획서 좀 빨리 작성해 줘' 하고 존대의 효과가 없는 '해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게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조금 대우해 줄 수도 있다.

| | | | |
|---|---|---|---|
| ① | ㉠ 그러나 | ㉡ 한편 | ㉢ 그래서 |
| ② | ㉠ 그러나 | ㉡ 한편 | ㉢ 그리고 |
| ③ | ㉠ 그리고 | ㉡ 따라서 | ㉢ 그래서 |
| ④ | ㉠ 그리고 | ㉡ 따라서 | ㉢ 그러나 |

정답 1번

NoteBase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과 문단 사이의 대조, 화제 전환, 인과 관계를 파악하여 알맞은 접속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그러나'는 앞뒤 내용이 서로 대조될 때 쓰는 말이다. '한편'은 앞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측면으로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의 내용이 그 결과나 귀결이 될 때 쓰는 말이다.
ㄱ에서는 또래 사이의 일반적인 '해요체' 사용과 나이가 많거나 공식적인 경우의 '합쇼체' 사용이 대조된다.
ㄴ에서는 또래 관계의 이야기에서 가정과 직장의 아랫사람을 대하는 문제로 화제가 전환된다. ㄷ에서는 직장에서 아랫사람도 어느 정도 높여 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작성해 줘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그러나'는 일반적인 또래 관계와 예외적인 상황을 대조하고, ㄴ의 '한편'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경우로 화제를 전환한다. ㄷ의 '그래서'는 직장에서는 아랫사람도 높여 대해야 한다는 앞의 내용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 세 표현이 모두 문맥에 맞는다.
② X — 틀린 표현은 ㄷ의 '그리고'이다. 뒤 문장은 단순히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직장 내 높임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 귀결이므로, '그리고'가 아니라 '그래서'가 알맞다.
③ X — 틀린 표현은 ㄱ의 '그리고'와 ㄴ의 '따라서'이다. ㄱ은 앞뒤 내용의 대조이므로 '그러나', ㄴ은 인과 관계가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의 화제 전환이므로 '한편'이 알맞다. ㄷ의 '그래서'는 문맥에 맞는다.
④ X — ㄱ의 '그리고'는 대조 관계를 드러내지 못하므로 '그러나'로 고쳐야 한다. ㄴ의 '따라서'는 인과 관계가 없는 자리이므로 '한편'으로 고쳐야 한다. ㄷ의 '그러나'는 앞뒤를 역접으로 연결하므로 부적절하고, 앞의 원칙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서'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포인트

ㄴ 뒤에 '직장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라는 대조적 내용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ㄴ에 '그러나'를 넣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ㄴ은 앞 문단의 또래 관계에서 가정과 직장의 아랫사람 관계로 논의 대상을 바꾸는 자리이므로 '한편'이 알맞다. 또한 ㄷ은 예시의 단순 추가가 아니라 앞 원칙에 따른 귀결이므로 '그리고'보다 '그래서'가 적절하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의 바로 앞뒤 문장만 보지 않고 문단 전체의 관계를 확인한다. 서로 반대되면 '그러나', 관련된 다른 측면으로 논의를 옮기면 '한편', 앞의 원인·원칙에서 뒤의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대조는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의 전환은 '한편', 원인에 따른 결과는 '그래서'이다.

NoteBase

12. 다음 중 밑줄 친 ㉠~㉣의 한자음이 잘못 연결된 것은?

> 우리는 어떤 行爲가 ㉠行爲者의 ㉡自由意志에 의한 것일 때에 그 行爲에 대해 道德的 ㉢責任을 물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自由意志에 의한 行爲인지의 ㉣與否를 가리는 基準은 무엇일까?

① ㉠ 行爲者-행위자
② ㉡ 自由意志-자유의사
③ ㉢ 責任-책임
④ ㉣ 與否-여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지문에 쓰인 한자어의 정확한 한자음을 알고, 제시된 한자와 독음의 연결이 맞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自由意志는 '자유의지'로 읽는다. 意志는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이나 뜻을 가리키며, 한자음은 '의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行為者는 行(행)·為(위)·者(자)이므로 '행위자'로 읽는다.
② X — 自由意志를 '자유의사'로 읽은 부분이 잘못되었다. 自由意志는 自(자)·由(유)·意(의)·志(지)이므로 올바른 독음은 '자유의지'이다.
③ O — 責任은 責(책)·任(임)이므로 '책임'으로 읽는다.
④ O — 與否는 與(여)·否(부)이므로 '여부'로 읽는다.

**오답 포인트**

②의 意志를 문맥상 비슷하게 느껴지는 '의사'로 바꾸어 읽기 쉽다. 그러나 志의 한자음은 '지'이므로 意志는 반드시 '의지'가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 전체의 익숙한 뜻만 보지 않고 각 글자의 음을 하나씩 대응한다. 自-자, 由-유, 意-의, 志-지로 나누면 自由意志의 독음이 '자유의지'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意志는 의지, 與否는 여부이다.

NoteBase

13. 다음 중 밑줄 친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앞서 도공은 지난 주 경영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으로 기존 전자화폐나 교통카드 겸용 신용 카드 대신 새로운 스마트 카드를 도입하고 이의 발급을 도공 자신이 주관키로 결정했다. 도공 관계자는 20일 "기존 전자화폐 5종의 경우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도 각 지역별로 호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 해 2조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공사가 직접 관리, 운용하는 편이 충실한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① 막역지우(莫逆之友)
② 백중지세(伯仲之勢)
③ 난형난제(難兄難弟)
④ 막상막하(莫上莫下)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 맞는 사자성어와 사람 사이의 친분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막역지우(莫逆之友): 서로 거스름이 없을 만큼 뜻이 잘 맞는 매우 친한 친구를 뜻한다. 핵심어는 '친구'이다.
백중지세(伯仲之勢): 서로의 실력이 엇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형세를 뜻한다.
난형난제(難兄難弟):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정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을 뜻한다.
막상막하(莫上莫下): 어느 쪽이 위이고 아래인지 가리기 어려울 만큼 서로 비슷함을 뜻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막역지우는 '매우 친한 친구'를 뜻하므로, 여러 결제 수단이 서로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막역지우'는 '백중지세', '난형난제', '막상막하'처럼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뜻의 표현으로 고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② O — 백중지세는 두 대상의 형세나 실력이 엇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밑줄 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③ O — 난형난제는 두 대상이 서로 비슷하여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정하기 어려움을 뜻하므로 밑줄 친 상황에 적절하다.
④ O — 막상막하는 어느 쪽도 더 낫거나 못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다는 뜻이므로 밑줄 친 상황에 적절하다.

### 오답 포인트

네 표현이 모두 '사이가 가깝거나 비슷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①의 '막역지우'는 사람 사이의 친분을 가리키고, ②~④는 대상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부정형 발문이므로 X인 ①을 골라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자성어가 수식하는 대상과 문맥의 핵심어를 먼저 맞춘다. '친구·우정'이면 막역지우이고, '비슷한 수준·우열을 가리기 어려움'이면 백중지세·난형난제·막상막하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발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지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막역지우는 친한 친구, 백중지세·난형난제·막상막하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NoteBase

14. 다음 중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외적으로 작가의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된다. 문학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내적 요소들의 결합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외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며 이루어진다.
>
> 작가의 맥락은 작품을 창작한 작가와 문학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작가의 생애나 작가가 경험한 특정한 사건이 작품에 반영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지용의 시 「유리창」에는 어린 자식을 잃은 정지용의 가정사가 반영되어 있다.
>
>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문학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
> 문학사적 맥락은 문학사와 문학 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
> ㉠(　　) 문학작품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하나의 작품을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때 상호 텍스트성이 나타난다.
>
> –「고등학교 문학」

①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② 문학 작품의 이해는
③ 문학 작품의 내적 맥락은
④ 문학 작품의 비평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학 작품의 여러 맥락 가운데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개념이 상호 텍스트적 맥락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 핵심 개념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하나의 작품을 다른 작품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맥락이다.
작가의 맥락은 작품과 작가의 생애·경험의 관계, 사회·문화적 맥락은 작품과 당대 사회·문화 상황의 관계, 문학사적 맥락은 작품과 문학사의 관계를 뜻한다. 내적 맥락은 작품 내부 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가리킨다.

### 선지별 해설

① O —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라고 이어지며, 다음 문장의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과 정확히 호응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문학 작품의 이해는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이다. 문학 작품의 이해는 수용자가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이며, 올바르게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문학 작품의 내적 맥락은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이다. 내적 맥락은 한 작품 안에서 내용·형식 등 내적 요소들이 맺는 결합 관계이며, 작품 사이의 관계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문학 작품의 비평은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이다. 문학 작품의 비평은 작품을 해석하고 가치와 의미를 평가하는 활동이며, 작품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은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다.

### 오답 포인트

빈칸 뒤의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만 보지 않고, 바로 다음 문장의 '하나의 작품을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한다는 정의까지 연결해야 한다. '내적 맥락'은 한 작품 내부의 관계이고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작품과 작품 사이의 관계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맥의 관계 대상을 확인한다. 작품과 작가이면 작가의 맥락, 작품과 사회·문화이면 사회·문화적 맥락, 작품과 문학사이면 문학사적 맥락, 한 작품 내부 요소끼리이면 내적 맥락, 작품과 다른 작품이면 상호 텍스트적 맥락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상호'는 작품과 작품 사이, '내적'은 한 작품 안의 요소 사이이다.

NoteBase

15. 다음 중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최근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생태계의 파괴와 새롭게 개발된 생명과학 기술이 점차 인간의 삶과 그 존엄성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생명과학에 대한 세상의 관심도 높아졌고 그것이 갖는 도덕성도 심심찮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와 관련하여 생명과학이 주목을 받는 것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생명과학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상태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명과학이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
>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생명과학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는 생명과학이 개발해 내고 있는 각종 첨단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표출인 것이다. 다른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생명과학도 ( ㉠ )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학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갖는 가공할 만한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① 개연성　② 합리성
③ 양면성　④ 일관성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생명과학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시된 문맥을 바탕으로, 서로 반대되는 두 측면을 함께 지닌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면성은 한 대상이 서로 대립하거나 상반되는 두 가지 성질을 함께 지니는 특성이다. 이 글에서는 생명과학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할 가능성을 주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위험도 지닌다는 점이 두 측면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개연성은 어떤 사건이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성질이다. 글은 생명과학이 그럴듯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맞지 않는다. '생명과학도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가 아니라 '생명과학도 가능성과 위험성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가 알맞다.
② X — 합리성은 생각이나 행동이 이치와 논리에 맞는 성질이다. 글은 생명과학의 논리적 타당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생명과학도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가 아니라 '생명과학도 기대되는 면과 경계해야 할 면을 함께 지닌 양면성이 있다'가 알맞다.
③ O — 양면성은 한 대상에 상반되는 두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 성질이다. 생태계 복원이라는 긍정적 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부정적 위험이 함께 제시되므로 문맥에 가장 적절하다.
④ X — 일관성은 태도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서로 어긋나지 않는 성질이다. 글은 생명과학의 한결같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가능성과 위험의 공존을 말한다. '생명과학도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가 아니라 '생명과학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가 알맞다.

**오답 포인트**

'무한한 가능성'만 보면 개연성이나 합리성처럼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빈칸 뒤의 '기대를 걸면서도 동시에 … 위험성을 경계'가 긍정과 부정의 두 측면이 함께 있음을 직접 드러내므로 ③의 양면성이 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의 앞뒤에서 대조되는 내용을 찾는다. 한 대상에 '가능성-위험성', '이익-해악', '기대-우려'처럼 상반된 속성이 동시에 제시되면 양면성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양면성은 한 대상 안에 긍정과 부정, 이익과 위험처럼 서로 반대되는 두 얼굴이 함께 있는 성질이다.

NoteBase

16. 아래의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문장을 고르시오.

> 부사는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줍니다. 그런데 부사 중에는 '다행히 우리는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의 '다행히'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 주면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종류도 있어요

① 설마 학교에 가지 않은 건 아니지?
② 차가 빨리 달린다.
③ 공을 멀리 던졌다.
④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특정 용언을 꾸미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미며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성분 부사는 문장 안의 특정 성분, 주로 용언을 꾸며 동작의 방식·정도·거리·상태 등을 구체화한다.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미며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 이 문항에서는 부사가 특정 용언에 직접 연결되는지, 문장 전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설마'는 '학교에 가지 않은 건 아니지?'라는 문장 전체를 꾸미며, 그럴 리 없다고 여기거나 의심하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부사이다. 제시된 설명에 가장 부합한다.
② X — '빨리'는 용언 '달린다'를 꾸며 달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성분 부사이다. '빨리'를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로 보는 것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빨리'는 '달린다'를 꾸미는 성분 부사이다.
③ X — '멀리'는 용언 '던졌다'를 꾸며 공을 던진 거리를 나타내는 성분 부사이다. '멀리'를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로 보는 것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멀리'는 '던졌다'를 꾸미는 성분 부사이다.
④ X — '가지런히'는 용언 '놓여 있다'를 꾸며 책이 놓인 상태를 나타내는 성분 부사이다. '가지런히'를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로 보는 것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가지런히'는 '놓여 있다'를 꾸미는 성분 부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 부사가 쓰였다는 공통점만 보면 ②~④도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시문이 요구하는 핵심은 단순히 용언을 꾸미는 부사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꾸미며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설마'만 이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사가 무엇을 꾸미는지 확인한다. 특정 용언의 방식·정도·거리·상태를 구체화하면 성분 부사이고, 문장 전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의심·추측 같은 태도를 드러내면 문장 부사이다.

**암기 포인트**

용언 하나를 꾸미면 성분 부사, 문장 전체와 화자의 태도를 꾸미면 문장 부사이다.

NoteBase

17. 다음 글이 <보기>의 ㉠~㉣ 중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 서양인이나 중동인은 해부학적으로 측면의 얼굴이 인상적인 이미지를 남긴다. 그래서 서양미술에서는 사람의 측면만 그리는 '프로필(프로파일)'이라는 미술 장르가 발달했다. 프로필이라는 말이 인물 소개를 뜻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보 기>

> 어떤 이집트 그림에서는 사람의 얼굴은 측면, 눈은 정면, 목은 측면, 가슴은 정면, 허리와 발은 측면으로 그려지곤 한다. 인간의 신체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세인 것이다.
>
> 그럼에도 이 그림을 처음 볼 때 우리는 별로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신체의 각 부위가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위주로 봉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넓은 가슴이나 눈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그 특징이 잘 살아난다. ( ㉠ )
>
> 이렇게 각 부위의 중요한 면 위주로 조합된 인체상은 이상적인 부분끼리의 조합이므로 완전하고 완벽하며 장중한 형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흠 없는 인간, 영원히 썩지 않고 스러지지 않을 초월적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 ㉡ )
>
> 이집트 그림에서는 신과 파라오, 귀족만이 이렇게 그려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곧잘 이런 법칙과 관계없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 ㉢ ) 이는 신과 파라오, 나아가 귀족은 오로지 '존재하는 자'이고, 죽을 운명의 범인들은 그저 '행위하는 자'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
> 범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측면이면 가슴도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은, 그들은 썩어 없어질 '찰나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 ㉣ ) 반면 고귀한 신분은 삼라만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영원한 세계의 이상을 반영하는 존재이므로 이상적 규범에 따라 불변의 양식으로 그려진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문단 삽입 문제에서는 삽입문의 핵심 화제와 앞뒤 문장의 화제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위치를 찾는다. 이 글에서는 이집트 그림의 측면 얼굴 표현에 대한 설명과 프로필의 발달을 연결하는 자리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삽입문은 서양인이나 중동인이 측면 얼굴에서 강한 인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한 뒤, 그 결과 서양 미술에서 측면만 그리는 '프로필' 장르가 발달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앞에서는 측면 위주로 신체를 표현하는 방식과 그 인상 효과가 제시되어야 하고, 뒤에서는 그 표현이 주는 이상적·초월적 인상으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ㄱ O

삽입문 앞에서는 얼굴·목·허리·발을 측면으로 그리며 각 부위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과 그 그림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삽입문은 이 가운데 '측면의 얼굴'이 강한 인상을 남기며 프로필 미술로 발전했다는 내용을 보충한다.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게 조합된 인체상이 완전하고 장중한 인상을 준다고 정리하므로 흐름이 자연스럽다.

② ㄴ X

ㄴ 뒤의 문장은 '이집트 그림에서는 신과 파라오, 귀족만이 이렇게 그려지고'라고 하여 앞에서 설명한 이상적 인체상의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 ㄴ에 삽입하면 이상적 인체상이 주는 초월적 인상과 그 표현 대상의 구분 사이에 프로필의 어원·장르 설명이 끼어 흐름이 끊긴다. ㄴ이 아니라 ㄱ에 들어가야 한다.

③ ㄷ X

ㄷ 앞에서는 신·파라오·귀족은 '존재하는 자', 범인은 '행위하는 자'라는 대조를 제시하고, 뒤에서는 범인을 사실적으로 그린 이유를 설명한다. ㄷ에는 이 대조의 이유가 이어져야 하므로 측면 얼굴과 프로필을 설명하는 삽입문은 맞지 않는다. ㄷ이 아니라 ㄱ에 들어가야 한다.

④ ㄹ X

ㄹ 앞에서는 범인을 사실적으로 그린 까닭을 '찰나의 인생'에서 찾고, 뒤에서는 고귀한 신분의 인물이 영원한 세계의 이상을 반영하여 불변의 양식으로 그려진다고 대조한다. ㄹ에는 범인과 고귀한 신분의 표현 차이를 잇는 내용이 와야 하므로 프로필 장르의 발달을 설명하는 삽입문은 맞지 않는다. ㄹ이 아니라 ㄱ에 들어가야 한다.

**오답 포인트**

삽입문에 '서양 미술'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화제로 보면 안 된다. 핵심 연결어는 '측면의 얼굴'이며, 이는 ㄱ 바로 앞의 얼굴·목·허리·발을 측면으로 그린다는 설명을 직접 이어받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삽입문의 반복어와 지시 대상을 찾고, 각 후보 위치의 앞 문장에서 그 대상이 제시되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뒤 문장이 삽입문의 내용을 받아 요약·확장하는지 살핀다. 이 문항에서는 '측면의 얼굴'이 앞의 측면 표현을 받고, 뒤의 '이렇게'가 앞서 설명한 표현 방식을 정리하므로 ㄱ이 결정된다.

**암기 포인트**

문단 삽입은 '앞에서 화제 제시, 삽입문에서 보충, 뒤에서 요약·확장'의 연결을 확인한다.

NoteBase

18. 다음 글에 나타나지 않는 수사법은?

> 불안인지 환희인지 모를 것으로 터질 듯한 마음을 부채질하듯이 벌판의 모든 곡식과 푸성귀와 풀들도 축 늘어졌던 잠에서 깨어나 일제히 웅성대며 소요를 일으킨다. 그러나 소나기의 장막은 언제나 우리가 마을 추녀 끝에 몸을 가리기 전에 우리를 덮치고 만다. 채찍보다 세차고 폭포수보다 시원한 빗줄기가 복더위와 달음박질로 불화로처럼 단 몸뚱이를 사정없이 후려치면 우리는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① 역설법
② 과장법
③ 직유법
④ 활유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쓰인 수사법을 구체적인 표현과 연결하고, 나타나지 않은 수사법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역설법은 겉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을 통해 진실이나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과장법은 실제보다 크거나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직유법은 '처럼', '듯이' 등의 말로 두 대상을 직접 빗대는 방법이다. 활유법은 생명이 없는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역설법 X
서로 모순되는 말을 결합하여 의미를 드러낸 표현은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역설법'은 이 글에 사용되지 않은 수사법이며, 이 선지가 정답이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에 역설법은 나타나지 않는다'이다.

② 과장법 O
'터질 듯한 마음', '우리는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는 불안과 환희로 격해진 마음을 실제 폭발에 빗대어 강하게 부풀린 표현이므로 과장법에 해당한다.

③ 직유법 O
'마음을 부채질하듯이', '불화로처럼 단 몸뚱이'는 '듯이', '처럼'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직접 빗대므로 직유법에 해당한다.

④ 활유법 O
'곡식과 푸성귀와 풀들'이 '잠에서 깨어나 일제히 웅성대며 소요를 일으킨다'고 한 것은 식물을 사람처럼 행동하는 살아 있는 존재로 표현한 것이므로 활유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불안인지 환희인지'는 서로 다른 감정을 나란히 제시한 말일 뿐, 겉으로 모순되는 진술 속에 의미를 담은 역설은 아니다. 또한 이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수사법을 묻는 부정형 발문이므로, 실제로 확인되는 과장법·직유법·활유법을 고르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발문의 긍정·부정을 확인한 뒤, '처럼·듯이'는 직유, 실제보다 강한 표현은 과장, 무생물의 생명체다운 행동은 활유로 대응시킨다. 마지막으로 모순되는 표현이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여 역설 여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처럼·듯이=직유, 부풀림=과장, 무생물의 생명화=활유, 모순 속 진실=역설이다.

NoteBase

1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명품'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말이 어처구니없는 오해를 빚어내는 것과 같다. '대통령'은 원래 'president'를 번역하면서 생겨난 말인데, 이 원어는 라틴어로 '앞'이라는 뜻의 'pre-'와 '앉아 있다'라는 뜻의 'sidere'의 합성어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뜻하는 '회의 석상에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president'가 대통령, 즉 '국가의 통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명령을 내리는 사람'으로 번역되면서 아직도 전제 정치의 특징인 '통치권'이 우리 정치 사회를 흔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
> 마찬가지로 돈이 되기만 하면 달려드는 상업주의 장사꾼들과 시청률과 구독률만을 높이기만 하면 된다는 언론의 합작품인 '명품'이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건전한 소비의식이 병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에코는 기호학을 정의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하였나 보다.

① 에코의 말은 과장에 해당한다.
② '명품'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어이다.
③ 일부 기업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④ '비교'에 해당하는 설명 방식을 활용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지문에 제시된 두 용어의 생성 배경, 글쓴이의 비판 대상, 그리고 과장·비교와 같은 설명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통령'은 영어 'president'를 옮기면서 생긴 번역어이고, '명품'은 상업주의 장사꾼과 언론이 만들어 퍼뜨린 용어이다. 글쓴이는 두 말이 각각 통치권 중심의 정치의식과 무비판적 소비의식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에코가 기호학을 '거짓말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 표현은 연구 대상을 '모든 것'으로 넓혀 강조한 말이므로 과장으로 볼 수 있다.

② X — 틀린 부분은 '명품'이 '잘못된 번역어'라는 표현이다. 지문은 '대통령'을 'president'의 번역 과정에서 생긴 말이라고 설명하지만, '명품'은 상업주의 장사꾼과 언론이 만들어 낸 용어라고 한다. 올바르게는 '명품'은 잘못된 번역어가 아니라 상업주의와 언론의 합작품인 용어이다.

③ O — 글쓴이는 상업주의 장사꾼들이 돈이 되면 달려들고 언론이 시청률과 구독률만 높이려 한다고 지적하므로, 일부 기업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④ O — 글은 '명품'이라는 말이 낳는 오해를 설명하기에 앞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낳는 오해를 유사한 사례로 제시한다. 두 용어의 생성과 부정적 영향을 견주므로 비교에 해당하는 설명 방식을 활용하였다.

**오답 포인트**

'대통령'과 '명품'이 모두 잘못된 의식을 낳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두 말의 생성 과정까지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번역어라는 설명은 '대통령'에만 해당하고, '명품'은 언론과 상업주의가 만들어 낸 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어를 지문의 해당 문장과 대응시킨다. 특히 두 대상을 나란히 다룬 글에서는 공통점과 생성 배경을 구분하고, 한 대상의 설명을 다른 대상에 옮겨 붙인 선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대통령'은 번역 과정에서 생긴 말, '명품'은 상업주의와 언론이 만들어 퍼뜨린 말이다.

NoteBase

20. 다음 중 (가)~(다)를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사회 문제의 종류와 내용 및 그에 대한 관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운명론을 예로 들어보자. 운명론은 한마디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불평등을 하늘의 뜻으로 또는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
> (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사회 문제'의 관념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전통 사회에서는 기존 질서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따라서 '규범의 파괴'가 가장 핵심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
> (나) 한편,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사회 문제의 관념은 운명론의 배격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우선 사람의 고통은 여러 사람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 제도와 체제의 책임이라는 관념, 나아가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
> (다) 따라서 운명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겪는 고통은, 그것이 심한 사회적 통제와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잘못이 아닌 그들 개개인의 탓으로 돌려진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단적인 예에 속한다.

① (나) → (가) → (다)
② (나) → (다) → (가)
③ (다) → (가) → (나)
④ (다) → (나) → (가)

정답 3번

NoteBase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시 표현과 접속어를 근거로 문단 사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올바른 순서

1. (다) — 앞 문단의 운명론 정의를 '따라서'로 이어 받아, 운명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고통의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결과를 설명한다.
2. (가) — '이러한 상황'으로 (다)의 상황을 받아, 전통 사회에서 기존 질서의 유지와 규범 파괴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다는 점을 설명한다.
3. (나) — '한편, 오늘날'로 (가)의 전통 사회와 대조하며, 현대의 사회 문제 개념이 운명론의 배격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한다.

왜 이 순서인가: (다)는 앞의 운명론 정의에서 결과를 이끌어 내고, (가)는 그 결과를 '이러한 상황'으로 받아 전통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며, (나)는 이를 오늘날의 관점과 대조하기 때문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 (나)의 '한편, 오늘날'은 전통 사회를 설명한 (가) 뒤에 와야 하므로 (나)가 첫 문단이 될 수 없다. 틀린 순서 '(나) → (가) → (다)'는 올바르게는 '(다) → (가) → (나)'이다.

② X — (다)의 '따라서'는 앞의 운명론 정의를 직접 이어 받으므로 (나) 뒤에 놓을 수 없고, (가)의 '이러한 상황'도 (다)의 내용을 받아야 한다. 틀린 순서 '(나) → (다) → (가)'는 올바르게는 '(다) → (가) → (나)'이다.

③ O — (다)가 운명론이 지배하는 사회의 결과를 제시하고, (가)가 '이러한 상황'을 받아 전통 사회의 사회 문제를 설명한 뒤, (나)가 '한편, 오늘날'로 현대의 관점과 대조하므로 문맥이 자연스럽다.

④ X — (나)는 '한편, 오늘날'로 (가)의 '전통 사회'와 대조되어야 하므로 (가)보다 먼저 올 수 없다. 틀린 순서 '(다) → (나) → (가)'는 올바르게는 '(다) → (가) → (나)'이다.

### 오답 포인트

'따라서'만 보고 (다)를 앞에 두는 데서 멈추면 ④를 고르기 쉽다. (나)의 '한편, 오늘날'이 (가)의 '전통 사회'와 짝을 이루고, (가)의 '이러한 상황'이 (다)의 내용을 가리킨다는 두 연결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 문제에서는 먼저 '따라서'와 같은 인과 접속어의 앞 내용을 찾고, 다음으로 '이러한 상황' 같은 지시 표현의 지시 대상을 찾으며, 마지막으로 '한편'과 시간 표현이 만드는 대조 관계를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운명론의 결과 (다) → 이러한 전통 사회 (가) → 한편, 오늘날 (나)의 흐름이다.

NoteBase

21.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잘못된 것은?
①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휴지를 샀다.
②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축하 메세지를 보냈다.
③ 동네 아이들이 길가에서 초콜릿을 나눠 먹고 있었다.
④ 요즘에는 디지털보다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이 인기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를 한글로 적을 때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준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법은 다른 언어에서 들어온 말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한글로 적는 규범이다. 이 문항에서는 익숙한 발음이나 관용적인 철자에 기대지 않고 '슈퍼마켓, 메시지, 초콜릿, 아날로그'라는 표준 표기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슈퍼마켓'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따라서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휴지를 샀다.'는 올바르다.
② X — '메세지'가 잘못된 표기이다. 올바르게는 '메시지'이므로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써야 한다.
③ O — '초콜릿'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따라서 '동네 아이들이 길가에서 초콜릿을 나눠 먹고 있었다.'는 올바르다.
④ O — '아날로그'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디지털보다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이 인기이다.'는 올바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메세지'는 실제 발음에 익숙해 표준 표기처럼 느끼기 쉽다. 그러나 'message'의 표준 외래어 표기는 '메시지'이며, 가운데 음절을 '세'로 적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래어 표기 문제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표기보다 규범상 정해진 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메시지'처럼 'ㅔ'와 'ㅣ'가 혼동되기 쉬운 단어의 정확한 음절을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메세지(X) → 메시지(O)

NoteBase

22. 다음 작품과 주제 및 정서가 가장 비슷한 것은?

> 홍진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ᄒᆞᆫ고
> 녯 사ᄅᆞᆷ 풍류ᄅᆞᆯ 미출가 못 미출가
> 천지간 남자 몸이 날 만ᄒᆞᆫ 이 하건마ᄂᆞᆫ
> 산림에 뭇쳐 이셔 지락을 ᄆᆞᄅᆞᆯ 것가
> 수간모옥을 벽계수 앏픠 두고
>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여셔라
>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 도화행화ᄂᆞᆫ 석양리예 퓌여 잇고
> 녹양방초ᄂᆞᆫ 세우 중에 프르도다
> 칼로 ᄆᆞᆯ아 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ᄉᆞᄅᆞᆸ다
>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춘기ᄅᆞᆯ 못내 계워
> 소ᄅᆡ마다 교태로다
> 물아일체어니 흥이야 다ᄅᆞᆯ소냐
> 시비예 거러 보고 정자애 안자 보니
> 소요음영ᄒᆞ야 산일이 적적ᄒᆞᆫᄃᆡ
> 한중진미ᄅᆞᆯ 알 니 업시 호재로다

①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로 도라드니
산천은 의구ᄒᆞ되 인걸은 간 ᄃᆡ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ᄭᅮᆷ이런가 ᄒᆞ노라

② 수양산 ᄇᆞ라보며 이제ᄅᆞᆯ 한ᄒᆞ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도 ᄒᆞᄂᆞᆫ 것가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짜헤 낫드니

③ 청산은 엇뎨ᄒᆞ야 만고애 프르르며
유수ᄂᆞᆫ 엇뎨ᄒᆞ야 주야애 긋디 아니ᄂᆞᆫ고
우리도 그티디 마라 만고상청호리라

④ 십 년을 경영ᄒᆞ여 초려삼간 지여 내니
나 ᄒᆞᆫ 간 ᄃᆞᆯ ᄒᆞᆫ 간에 청풍 ᄒᆞᆫ 간 맛져 두고
강산은 들일 ᄃᆡ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정답 4번

NoteBase

### 출제 포인트

제시 작품에 나타난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와 풍류의 정서를 파악하고, 각 선지의 중심 주제 및 정서와 비교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제시 작품의 화자는 봄날의 꽃과 풀, 시냇물과 새소리 등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 하나가 된 흥취와 한가로운 삶의 만족을 드러낸다. 핵심은 자연을 가까이하며 풍류를 누리는 자연 친화적 태도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다'와 '태평연월이 꿈이런가'에는 옛 도읍을 돌아보며 느끼는 망국의 회고와 무상감이 나타난다. 제시 작품과 같은 자연 속 풍류가 아니라, 옛 왕조의 쇠망을 슬퍼하는 정서로 고쳐 파악해야 한다.
② X —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통해 굳은 절의와 충절을 강조한다. 제시 작품과 같은 자연 친화적 흥취가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충절의 태도로 고쳐 파악해야 한다.
③ X — 변하지 않는 청산과 끊임없이 흐르는 유수를 본받아 '만고상청', 즉 오래도록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를 지향한다. 제시 작품과 같은 한가로운 풍류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개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고쳐 파악해야 한다.
④ O — 초가삼간을 마련하고 달, 청풍, 강산을 가까이 두며 자연을 감상하는 풍류를 노래한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만족과 흥취가 제시 작품의 주제 및 정서와 가장 비슷하다.

###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 자연물이 등장한다는 점만 보고 판단하면 ②나 ③을 고르기 쉽다. 수양산은 충절을 드러내는 배경이고, 청산과 유수는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한다. 자연 자체를 즐기며 풍류를 누리는 정서는 ④에 나타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에 나온 자연물의 종류보다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본다. 자연을 즐기는지, 망국을 한탄하는지, 충절이나 절개를 다짐하는지를 구분한 뒤 주제와 정서가 모두 겹치는 선지를 선택한다.

### 암기 포인트

자연 속 흥취와 풍류는 ④, 망국의 회고는 ①, 충절은 ②, 변치 않는 절개는 ③이다.

NoteBase

23. 다음 인용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근대 이후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았다. 즉, 거시적인 전망에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과정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겼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역사를 자본주의 경제의 확립이나 민족국가의 성립과 같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변화하는 사회 경제 질서와 그 표면에서 거품처럼 끓어오르는 정치권력의 흥망성쇠를 입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역사 서술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역사 서술인 미시사(微視史)는 이러한 역사 서술이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수치로 환원하여 거시적인 흐름으로 바꿔 버리거나 익명성의 바다속으로 사라지게 한다고 비판한다.

① 이 글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타난다.
② 종래 역사 서술의 주류를 형성해 온 것은 거시적인 전망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입장이었다.
③ 미시사적인 역사 서술은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수치로 환원시켜 익명성의 바다 속으로 사라지게 한다.
④ 거시적인 역사 서술은 특정 지역의 역사를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인용문에 제시된 거시적 역사 서술의 특징과 이에 대한 미시사의 비판을 구별하고, 각 선지의 주체가 올바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 핵심 개념

거시적 역사 서술: 거시적 전망에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과정과 정치 권력의 흥망성쇠 같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관점이다.
미시사: 거시적 역사 서술이 보통 사람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 수치로 환원하여 거시적 흐름에 묻히게 한다고 비판하는 관점이다.
핵심 구별은 '개인의 삶을 통계 수치로 환원하는 서술'의 주체가 미시사가 아니라 미시사가 비판하는 거시적 역사 서술이라는 점이다.

### 선지별 해설

① O — 글에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기존의 거시적 입장과,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삶이 사라진다고 비판하는 미시사의 입장이 함께 제시되어 서로 대비된다.
② O — 근대 이후 역사 서술의 주류는 거시적 전망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입장이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미시사적인 역사 서술은'이다. 보통 사람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 수치로 환원하여 거시적 흐름으로 바꾸고 익명성 속에 사라지게 하는 것은 미시사가 비판하는 기존의 거시적 역사 서술이다. 올바르게는 '미시사는 거시적 역사 서술이 보통 사람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 수치로 환원하여 거시적 흐름으로 바꾸고 익명성 속에 사라지게 한다고 비판한다'이다.
④ O — 특정 지역의 역사를 자본주의 경제의 확립이나 민족국가의 성립 같은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글에서 제시한 거시적 역사 서술의 한 방식이다.

### 오답 포인트

③은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서 비판의 대상을 비판의 주체로 바꾸었다. '미시사는 이러한 역사 서술이 … 한다고 비판한다'에서 '이러한 역사 서술'은 앞에서 설명한 거시적 역사 서술을 가리킨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판 구조가 제시된 글에서는 '누가 비판하는가'와 '무엇을 비판하는가'를 먼저 나눈다. 이 글에서는 미시사가 비판의 주체이고, 개인의 삶을 통계 수치와 거시적 흐름으로 환원하는 기존 역사 서술이 비판의 대상이다.

### 암기 포인트

거시사는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고, 미시사는 그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이 지워지는 현상을 비판한다.

NoteBase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는 건축가가 된 다음에 집을 짓거나, 거문고 연주가가 된 다음에 거문고를 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집을 지어봄으로써 건축가가 되고, 거문고를 타봄으로써 거문고 연주가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하게 되는 것이다.
>
> 그런데 ( ㉠ ) 실천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성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남과 사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행하는 행위에 의해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되며, 또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무서워하거나 태연한 마음을 지니거나 하는 습관을 얻게 됨으로써 혹은 용감한 이가 되고 혹은 겁쟁이가 된다. 욕망이나 분노 같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즉 자기가 당한 처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절제 있고 온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혹은 방종하고 성미 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24.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③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④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문에서 말하는 '반복적 실천이 습관과 성품을 형성한다'는 원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을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지문은 사람이 먼저 어떤 성품을 갖춘 뒤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절제 있고 용감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러한 성향과 습관을 얻고 마침내 성품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한 번의 행동만으로는 성향이나 성품이 형성되지 않으며 반복이 필요하다는 뜻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는 일에는 거쳐야 할 순서와 절차가 있어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문의 핵심인 반복적 실천에 의한 습관 형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틀린 대응은 '절차를 건너뛸 수 없다'이며, 올바르게는 '같은 행위를 반복해야 성향과 습관이 형성된다'이다.

② X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는 지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반복된 행동이 성품을 만든다는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틀린 대응은 '지휘자가 많아 생기는 혼란'이며, 올바르게는 '반복되는 행위가 습관과 성품을 만든다'이다.

③ X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는 목적을 이루려면 그 목적에 맞는 곳에 가거나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천의 필요성은 연상할 수 있지만,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성향과 성품이 형성된다는 핵심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틀린 대응은 '필요한 행동을 하면 목적을 이룬다'이며, 올바르게는 '필요한 행동을 반복해야 습관과 성품이 형성된다'이다.

④ O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는 단 한 번의 징표만으로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 번 옳거나 용감하게 행동한 것만으로 올바르거나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여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문의 논리와 가장 잘 맞는다.

**오답 포인트**

③도 '행동해야 결과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지문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빈칸 뒤에서는 실천이 성향이 되고 성향이 습관과 성품으로 이어진다고 하므로, 단순한 실천의 필요성보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반복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은 ④가 더 적절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에서 반복되는 인과 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이 지문은 '행위의 반복 → 성향과 습관 → 성품'의 구조이므로, 선지에서도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누적과 반복을 강조하는 표현을 고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한 번의 행동은 성품이 아니다. 반복된 실천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

NoteBase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는 건축가가 된 다음에 집을 짓거나, 거문고 연주가가 된 다음에 거문고를 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집을 지어봄으로써 건축가가 되고, 거문고를 타봄으로써 거문고 연주가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하게 되는 것이다.
>
> 그런데 ( ㉠ ) 실천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성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남과 사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행하는 행위에 의해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되며, 또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무서워하거나 태연한 마음을 지니거나 하는 습관을 얻게 됨으로써 혹은 용감한 이가 되고 혹은 겁쟁이가 된다. 욕망이나 분노 같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즉 자기가 당한 처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절제 있고 온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혹은 방종하고 성미 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25.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황 판단의 합리성
② 올바른 성품의 중요성
③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
④ 자기반성과 자아실현의 의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글의 구체적 사례와 반복되는 핵심 문장을 종합하여 중심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을 고르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제목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간결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 글은 집을 지어 건축가가 되고 거문고를 타서 연주가가 되는 것처럼, 옳고 절제 있고 용감한 행위를 거듭 실천하면 그것이 성향과 습관이 되어 마침내 성품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핵심은 실천과 습관이 성품 형성에 중요하다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상황 판단의 합리성'은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니다. 글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아니라 반복한 행위가 습관과 성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올바르게는 '실천과 습관을 통한 성품 형성'이라고 해야 한다.

② X — '올바른 성품의 중요성'만으로는 글의 핵심인 형성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글은 이미 갖춘 올바른 성품이 왜 중요한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의 반복이 올바른 성품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올바른 성품을 형성하는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한다.

③ O — 글은 어떤 행동을 반복하여 실천하느냐에 따라 습관이 생기고 성품이 형성된다고 일관되게 설명한다. 따라서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이 글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한다.

④ X — '자기반성과 자아실현'은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거나 잠재력을 실현하는 내용이 아니라 반복적 실천과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올바르게는 '실천과 습관에 의한 성품 형성의 의의'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글에 '올바른 사람'과 '성품'이 언급되어 그럴듯하지만, 결과인 성품만 제시하고 글이 강조한 원인인 실천과 습관을 빠뜨린다. 제목은 일부 소재가 아니라 글 전체에서 반복되는 인과 관계를 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 문제에서는 도입의 사례와 결론의 주장을 연결하고, 글에서 반복되는 핵심어와 인과 관계를 찾는다. 이 글에서는 '행위의 반복적 실천 → 성향과 습관 → 성품 형성'이 전체 흐름이므로 그중 원인인 실천과 습관을 함께 담은 제목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반복한 행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

NoteBase